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

# 학교 자치 하 살이 해라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  
학교자치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

# 학교 자치 한 살이 한해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

# 학교 자치 한 살이 나하리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  
학교자치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차례

### I 학교자치로 행복한 학교 05

---

### II 학교자치 한해살이 16

---

- 1. 봄이 오는 소리 18
- 2. 활기찬 여름 37
- 3. 가을걷이 그리고 꿈꾸는 겨울 55

### III 학교자치 도움 자료 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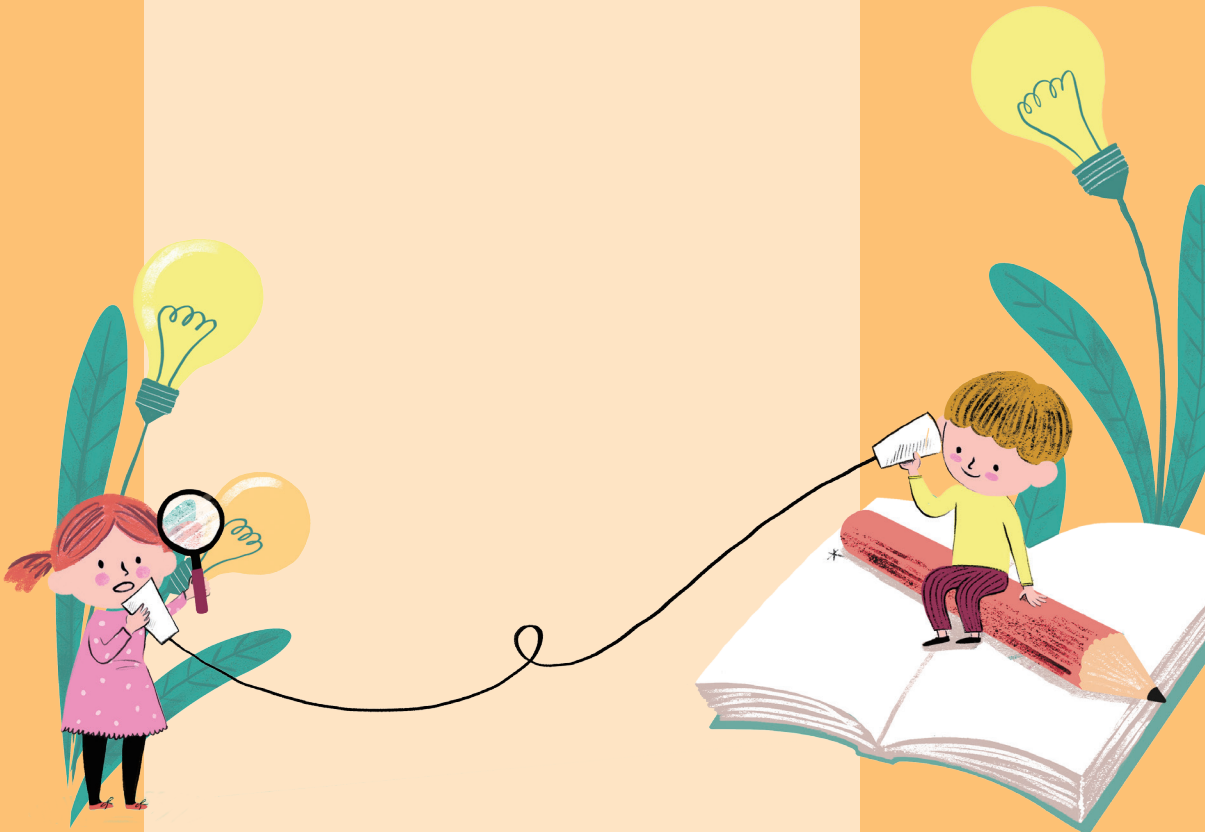
- 1. 학교자치 운영방안 모형 70
- 2. 프로젝트 실행과제 예시 72
- 3. 회의 진행과정 및 절차 74
- 4. 교직원회 운영규정 (예시안) 76
- 5. 교사회 운영규정(예시안) 79
- 6.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예시안) 82
- 7. 교사회, 교직원회 안건 예시 86
- 8. 학교자치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89
- 9.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91

I

학교자치로  
행복한 학교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

# 학교 자치 한 살이 나해라



그 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릴 걷고 친굴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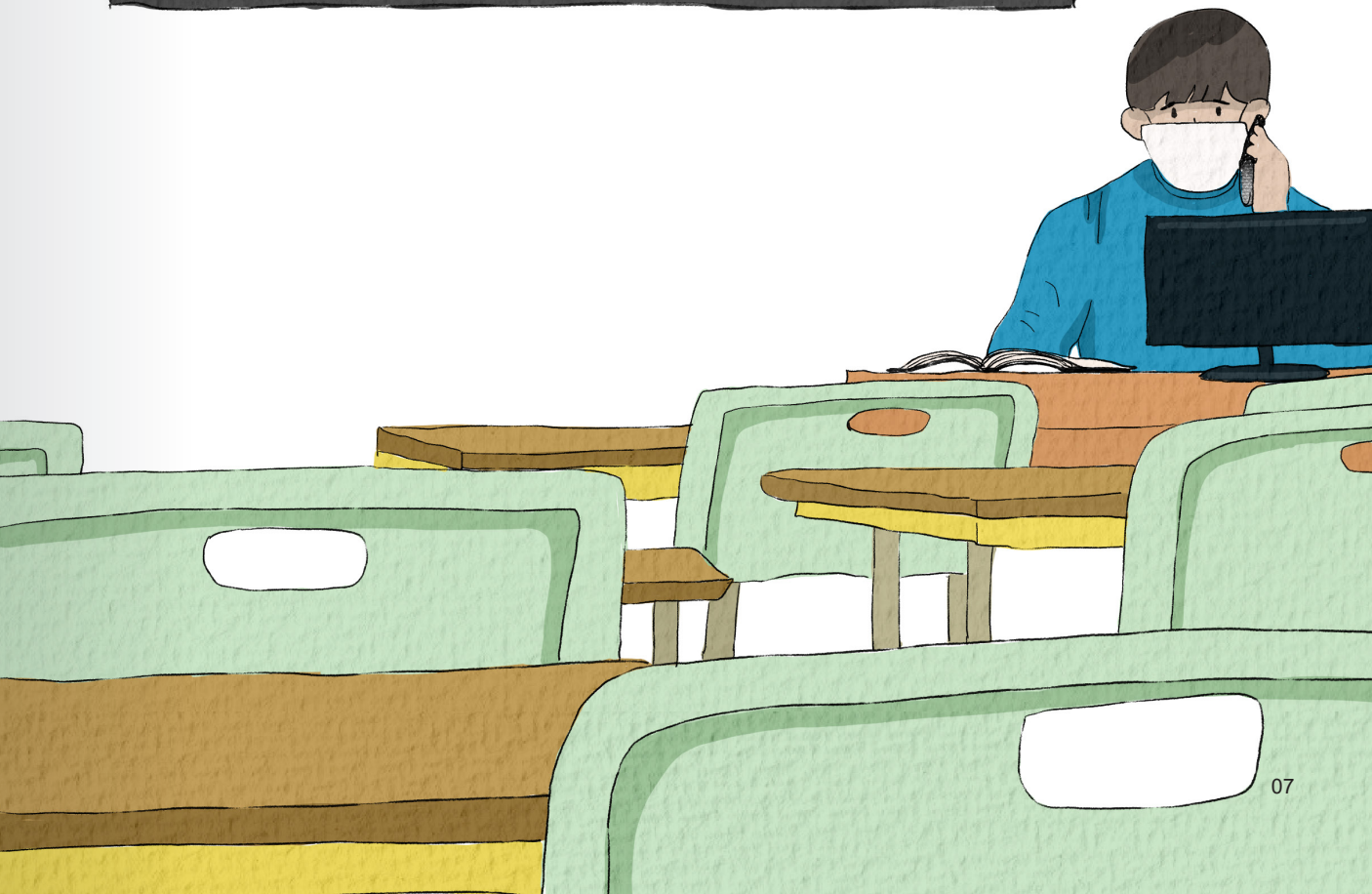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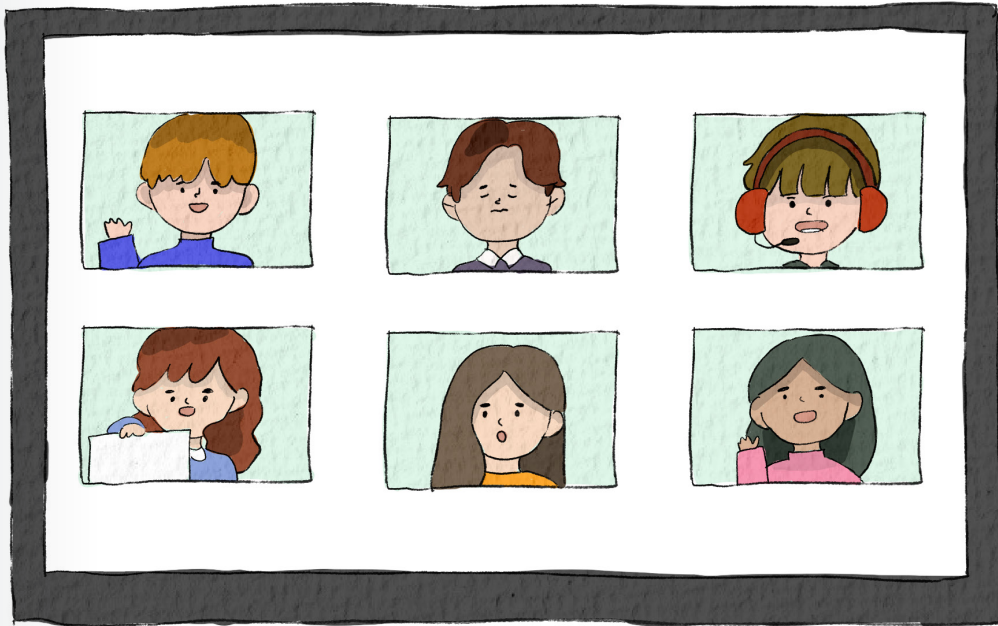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이적, <당연한 것들>

선생님 목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리고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은 작게만 느껴집니다.

혼자여야만 했던 시간 동안 함께라는 당연한 말이 더욱 소중한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각자가 노력했지만 만남 없이 그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 학교 자치 조례

그 만남과 연결에  
학교자치조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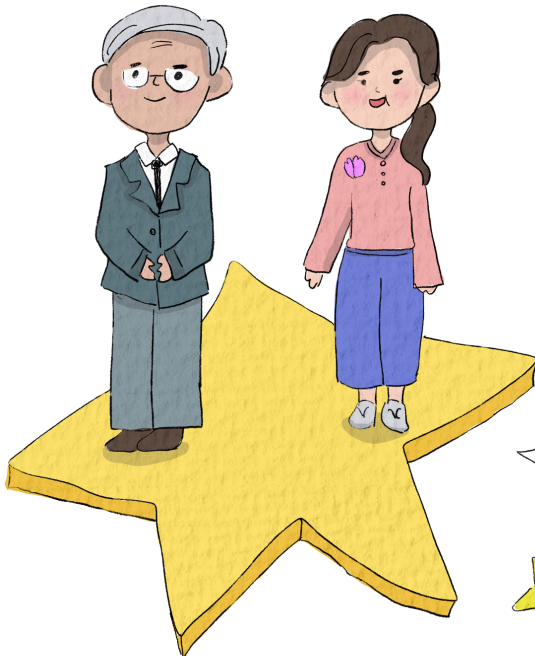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일상이 되고  
자치가 당연하게 되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연결된 미래를 상상해 볼까요?



우리 생각대로 학교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지금은 학교마다, 교실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올 생각에 설레요.

학생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져  
 서로를 이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자주 만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학교에 가면 저희 자리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졸업해도 지역주민으로 학교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모두가 바라는 미래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학교는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심 있고 여유 있는 사람만 학교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지위와 역할에 따라 행동할 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구성원은 연결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학교 제도와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만들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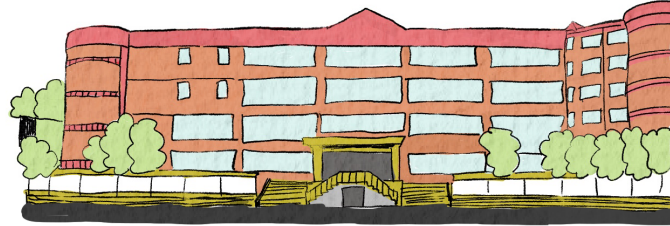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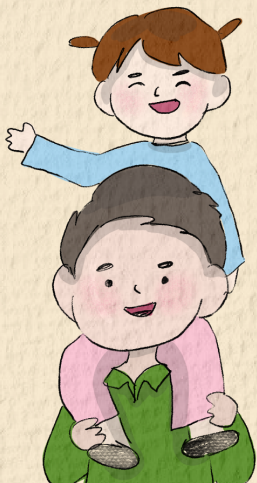
자치 활동을 통해 나다움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규정한 학생다움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학교를 우리에게 맞는 공간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주제가 있는 교직원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지시와 전달 방식의 회의 문화에서 벗어나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급 모임, 학교 모임을 매월 꾸준히 가지면서  
내 아이를 넘어서 학교와 교육으로  
시야가 넓어졌어요.



존 듀이는

“평등은 자유 혹은 권력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다.

권력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사회 속 개인은 자신의 완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뿐 아니라 학교와 같은 공동체도 권력이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나눠질 때 성장합니다.

**학교민주주의**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공동 주인으로서

자율과 자치를 통해 현안 문제를 깊이 논의하여 실천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학교자치**는 학교에 관한 일을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학교민주주의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권한이 분산되고

학교자치로 학교 구성원은 스스로 학교 일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학교민주주의로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자치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학교민주주의는 뿌리가 되어 탄탄한 학교문화로 자리잡고

학교자치는 실속 있는 열매 속 씨가 되어 다른 곳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경기도는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19년 11월 11일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자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에게 맞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으로  
이제 학교에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학교구성원은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치란 각 주체의 자치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의 자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

# 학교 자치 하 해2





# II

---

학교자치  
한해살이

## 1. 봄이 오는 소리 18

- ▶ 학교민주주의의 이유: 18
  - 우리는 결국 아름다워질 것이다 18
- ▶ 비전 공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25
- ▶ 사례: 비전 세우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6
- ▶ 학교자치기구 조직하기 31
  - 교사회
  - 직원회
  - 교직원회
  - 학부모회
  - 학생자치회

## 2. 활기찬 여름 37

- ▶ 비점촉시대 학교와 자치 37
- ▶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자치 45
- ▶ 부모에서 학부모로 슬기로운 변신 48
- ▶ 민주적으로 회의한다는 것은? 51
  - 어떤 것을 회의 주제로 삼을까?
  - 학생회, 학부모회와 교직원회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
  - 다수결로 회의를 종결해도 될까?

## 3. 가을걷이 그리고 꿈꾸는 겨울 55 ★

- ▶ 학교자치 되돌아보기 55
- ▶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워크숍 예시(초등, 중등) 58
- ▶ 학생자치회 인수인계 워크숍 64
- ▶ 학부모회 1, 2월 준비하기 66



## 1.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면 농부는 1년 농사를 위해 밭을 일굽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한해살이를 하기 위해 자치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학교의 철학을 세우고 자치기구를 조직합니다.



왜 학교는 민주적이어야 할까?  
학교민주주의는 학교의 교사, 학생, 부모에게 정말 필요하고 절박한 것일까?  
학교자치의 경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교육적 성취와 보람을 느끼게 할까?

## ▶ 우리는 결국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우학교 교장 김철원

### 1. 학교민주주의의 이유

작년에 ‘아이들의 삶과 존재의 위기’를 여러 자리에서 말했고 말할 때마다 울게 되었다. 그 말에는 아이들을 만나며 마주한 아주 구체적인 고통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각할 수 있어서 말할 때마다 허리가 꺾이고 무릎을 꿇게 되는



아픔이었다. 아이들은 외로움과 존재감과 불안함과 싸우고 있었다. 갈망은 있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컸고,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파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탓하며 세상을 미워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과업으로 짓눌려 있었다. 아이들은 청춘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실습생으로, 노동자로, 집에서 부모 없이 혼자 지내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사고와 죽음 가까이에 있게 되었다.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아이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가장 자기다운 인생을 발견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관념적인 담론과 당위적인 정책을 넘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아이들의 고통을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대안과 실천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일은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다.

교사들의 삶은 어떨까? 학교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와 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시대에 갈등적인 가치들은 공존하고 교육문제는 더 시급하고 복잡해져서 교사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확신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사회경제적 위기는 부모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가정에서의 따뜻한 돌봄과 정서적 교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변화가 교육 전반을 휩쓸면서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 커졌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4차 산업혁명시대 필요한 역량’ 같은 말들이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험해야 할지 차분히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교육과 학교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했고, 우리에게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우리 앞에 도착한 이 교육적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교의 과제를 ‘탁월한 영웅’이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학습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현장에서 실천하려면 우리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교육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사들이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사의 자존감과 존엄도 향상된다. 교사를 학교의 주체로 세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교사공동체를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이 복잡하고 시급한 과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적인 공동체는 언제나 위기 앞에서 강하고, 교사들의 자율성과 열정, 자존감도 크며,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그 중심에 있다.

## 2. 환대와 마음의 민주주의

“세상이 몇 가지의 수치화된 기준들로만 저를 판단하려 들면,  
저희 하나하나를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던 그 눈빛이 떠올라  
더 서러워질지도 모르겠어요.”

- 이우고등학교, 2020년 졸업생

올해 졸업한 학생이 보내온 편지에는 슬픔이 있어서 더 말을 보태기 어렵다. 편지의 핵심은 ‘수치화된 기준’, ‘대체 불가한 존재’, ‘서러움’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성적, 실적, 증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자신을 대체 불가한 존재로 바라봐주며 너는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 어떤 사람이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과 우리의 관계 맺기가 아이들을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로 존중하고 가장 자기다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아이들은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될 것 같다.

좋은 교육은 환대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좋은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한다. 학교에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서로의 맥락과 사정에 공감하고 당위보다 불가피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자체로 학교민주주의는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와 어떻게 함께 피구를 할까’를 토의하고, 급식실 조리사님들에게 밥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청소하시는 선생님에게 수업시간에 쓴 시를 선물하고, ‘나를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게 하는 분, 나의 선생님’이라고 동료교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한 명의 아이가 하나의 교육과정’이라는 지향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기획할 때, 의견을 위한 의견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믿고 있다.

제도와 절차의 민주주의와 함께 마음과 영혼의 민주주의가 나란히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가? 경청할 수 있는가? 서로의 고통의 맥락을 헤아릴 수 있는가?





### 3. 실패에 대한 희망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정, 인사, 예산 등에서 실질적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위임하는 것도, 위임된 권한을 교육적으로 책무성 있게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학교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원의 의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당위와 주장은 넘쳐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경험하는 기회도 적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가 완강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일까?

구조는 인간의 행동을 강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구조는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택할 여지를 남겨준다. 즉, 구조는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제공해준다. ...구조는 깨뜨릴 수 없는 굳어진 실체가 아니다. 구조가 제공하는 선택의 범위 내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구조는 변화되어 간다.

- 이혁규, <수업 비평가의 시선>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업을 비평하면서 필자는 강력한 구조를 변화시켜 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들과 교사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결국 희망을 설득해내는 일이다. 거짓 희망이 아니라 정직하게 절망하면서도 끝내 희망의 힘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일을 언제나 교사들과 함께하고 싶다.

또한, 우리는 학교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패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혼란과 갈등,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좌절, 실패에 대한 무력감과 냉소 같은 것들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이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오히려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해도 안 되는구나!)

교사들이 공동의 경험을 통해 공동의 감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성공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시도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서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거듭 기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왜 하려고 했는가?, 무엇이

시작하게 했는가?)

실패에 대한 희망, 작은 성공의 경험!!

예전에, 고2 학년학생회장 후보 공청회에서 어떤 학생이 “학년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데 어떤 마음으로 출마하게 되었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옆에 있는 선생님께 “저 아이가 마음의 문제를 건드렸네요.”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답이 몹시 궁금해졌다.

“저는 무거워지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지 않기 위해 시작한 겁니다.” 한 학생이 답했다. 그 말은 지금도 나를 떨리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삶을 무겁고 병들게 하는 것이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랴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자신과 우리를 도리어 구원할 것이라는 학생의 말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애써 시작하는지 짧지만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또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학년회장이 되든, 아님 다른 친구가 되든, 아님 후보 공청회가 다시 열리든, 저는 우리가 우리 학년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울먹이면서 말했다. 그 울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의 언어였다. 막연한 기대나 상투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희망의 말, 꿈의 언어였다.

고2 학년학생회 회의를 같이 한 적이 있다. 저녁 6시에 시작한 회의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그 이후에 아이들은 농활 회의를 했다.) 회의는 힘들었다. 여러 의제가 뒤섞여서 이야기는 하나로 분명하게 수렴되지 못했고, 진심이었는지는 몰라도 언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타자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세우는 말도 있었고, 이해받지 못함으로 터져 나오는 원망이 있었고, 지난 노력마저 자책하는 눈물이 있었고, 굳게 다문 입술이 끝내 열리지 않기도 했다. 회의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난 학년학생회장 후보 공청회 사진을 올리고 짧게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타자를 떠안고 실패를 견디며 우리는 끝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아이들과 결심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언하듯이 그렇게 썼다.



#### 4. 괴로운 만큼, 사랑이길.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다.  
 한약을 준비하는 어른이 힘들까, 그 쓴 약을 삼키는 아이가 더 힘들까?  
 좀 전까지만 해도 약을 먹는 아이가 힘들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한약을 준비했을 어른이 제일 힘들다.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온통 다녔을 것이고,  
 약재를 찌고 삶고 비틀고...그 약재를 달이는 과정이...  
 입에 쓴 게 몸에도 좋지만, 그 약은 정신에 더 좋다.  
 아이는 아이라 아파할 수도 있고 투정도 부릴 수 있다.  
 어른은 아이는 아니다.  
 자신을 달여 약을 만드는 어른은 괴롭다.  
 괴로운 만큼 사랑이길.  
 괴로운 만큼...

- 고2 학생

시 창작 수업 종강 후, 학생이 보내온 편지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서 차마 말을 보태기가 부끄럽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에서 학생은 한약을 준비하는 어른(교사)과 쓴 약을 삼키는 아이(학생) 중 약을 먹는 아이가 더 힘들 거라던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대개 아이들은 배우기를 싫어하고 언제든지 수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게 했을까?

두 번째 부분에서 학생은 약재를 구하고 찌고 삶고 비틀고 달이며 한약을 준비했을 어른이 힘든 이유를 말하며 그가 '자신을 달여 약을 만들기 때문에' 괴롭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수업을 정의할 때,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을 다양한 텍스트와 방법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을 달인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는 내용과 방법은 있지만 사람도 삶도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배우의 내용은 내용대로 삶은 삶대로 단절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배우의 위기는 방법의 위기가 아니라 의미의 위기이며 내용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결여인 셈이다. 우리가 가르침과 배우의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삶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면, 교사와 학생이 배우으로 삶과 연결되고 지속된다면, 학생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입에 쓰더라도) 기꺼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며 그것이 '정신에 좋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만든다는 것 또한 그럴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교사가 피로운 만큼 그것이 충분한 사랑이길 소망하고 있다. 이 사랑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면서 그보다 교사 자신에 대한 사랑이며 결국 그의 삶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다. 학생은 교사가 그 상처와 괴로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내어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길 바라고 있다.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막막하고 어렵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 “글을 쓸 때 하나의 문장을 쓸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의 문장, 또 하나의 문장, 그 다음의 문장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도 쓸 수 없다면 결국 어떤 글도 완성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자료집을 읽는 선생님들이 학교자치의 가장 처음의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길 소망한다.  
그리고 함께해요. 우리!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행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 라인홀드 니버



학교의 철학은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학교 구성원도 변하기 때문이죠. 기존 학교의 운영 방향을 유지하더라도, 다시 한번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학교 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은?

비전 공유



###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

학교자치 조례에서 언급된 학교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교직원은 행정직원과 교원으로 나뉘지고, 지위와 역할에 따라 더 세분화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도 생활하는 환경,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비전은 방향키

비전을 세우거나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현안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로 길을 잃거나 갈등할 때 함께 세운 비전을 준거로 생각의 차이 이면에 숨어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의 새로운 합의를 이루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 비전 세우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례

### S#1 학급이름 만들기(학기 초 적응교육)

오늘은 우리 학급의 이름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그동안 새로운 반에서 만난 선생님, 친구들과 공동체 놀이를 하며 친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학교를 다니며 좋았던 점을 공부시간과 그 외 시간으로 구분해서 모둠별로 붙임쪽지에 쓰라고 한다. 모둠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생각을 모아 나간다.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하고 선생님이 중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칠판에 붙여놓는다. 이번에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렵거나 싫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다양한 사진들을 모둠별로 나눠주며 올해 우리 반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사진을 골라 이야기하며 주요 단어를 써서 사진에 붙인다. 친구들의 사진들을 칠판에 모두 붙이고 의견을 들으며 선생님께서 주요 단어와 가치들을 따로 적어 놓는다. 함께 모은 가치와 주요 단어 중 많이 선택된 2~3가지를 추천다. 가치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학급의 이름을 다음 시간에 정하기 위해 각자 미리 생각해오기로 한다.

#### Explanation

- ☒ 이야기를 풍부하게 나누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그림책이나 영상 공유하기, 이미지 카드, 가치·욕구 카드)
- ☒ 이 과정은 이후 학급 약속 만들기(학생 간, 선생님, 교실 생활, 공부시간 등)를 통해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함께 협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학급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갖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때 학급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 S#2 학생회 비전 세우기

학생회장 선거를 작년부터 회장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로 진행한다. 선거 준비에서부터 회장과 부회장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공약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후 학생회 임원은 모집 공고를 통해 면접으로 선발한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 임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학생회가 구성되고 겨울방학 중에 학생회 임원 워크숍이 열렸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의 목표와 비전 세우기 과정을 통해 올해 학생회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다. 먼저 작년까지 학생회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의 참여와 선생님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학생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학생자치회장의 진행으로 임원들과 올해 핵심 목표를 세우고 공약들을 다시 살펴본 후,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모았다.

### Explanation

#### ☑ 사전 욕구 조사(게시판 활용 등 시각적 효과)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설문을 실시해 공통적인 욕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회가 꼭 실천하고 싶은 사업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학생회 사업의 일반적인 운영과정

- 학생회 역량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 지도교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학생회 조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①**목표설정**→ ②**기획**→ ③**실행**→ ④**평가 및 환류의 단계**로 진행하고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회 임원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S#3 교직원 비전 공유하기

학교 비전을 공유하는 날이다. 진행자는 학년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모둠을 편성한다.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침묵의 자리 찾기(예: 내 생일 달에 맞게 눈치로 알맞은 위치를 찾아 선 후 서로 확인하는 게임) 같은 간단한 게임을 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약속을 함께 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먼저, 학창시절 나는 편 학생이었고 학교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개구쟁이였던 사람, 조용하지만 고민이 많았던 사람, 교사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은 교직원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진행자는 “내가 꿈꾸는 학교란?”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교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와 관련된 논의 주제를 제시한다.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모둠 대화 내용 중 중요하고 공통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이어서 기존에 있던 학교의 비전을 세세하게 살펴본다. <함께 해서 커가는 ○○공동체>란 비전을 검토할 때 ‘함께’, ‘커가는’, ‘○○공동체’로 나누어 아이들을 만나는 다양한 장면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모습들과 교육과정을 연결하여 각 단어가 갖는 의미들을 풍부하게 논의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학교 교육의 운영원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 Explanation

- ☑ 비전 공유는 2월 새 학년 워크숍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전임 교직원 환영회와 학교비전 공유를 같은 날 진행하면, 교사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장, 행정실 직원, 급식실 조리실무사 등 교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 지위, 역할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모둠을 구성하면 좋습니다.
- ☑ 학교 비전을 공유한 후 학년별로 더 구체적인 교육과정 철학과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비전 공유 후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상, 학생상, 학부모상, 교직원상을 세우거나 각 주체별 또는 공동의 규범과 약속 만들기를 추후에 계획을 세워 논의할 수 있습니다.





#### S#4 학부모회 학교 비전 공유와 학부모상 세우기

○○초 도서관에서는 매달 화요일 10시에 누구나 학교(학부모 정기회의)가 열린다. 학부모들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6월에는 학부모상 세우기를 진행한다. 사전에 학부모회 임원들과 담당교사가 모여 학부모상에 대한 필요성, 의미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워크숍 과정을 논의한다.

먼저 교무부장이 이달의 학교 학년 행사를 안내하면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그 후 학부모회장이 학부모상 세우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먼저 4~5명씩 총 6모둠으로 모여 앉아 학부모의 모습을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생각을 확장하기 위해 '키워드 마인드맵'을 한다. 여러 단어가 든 주머니에서 하나의 단어를 뽑아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고정된 생각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확장하는 시간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하고 기발한 단어들이 4절 도화지를 채운다. 다음으로 '학부모는 어떤 존재인가?'란 질문을 제시하고 마인드맵 속에서 학부모의 존재와 관련 있는 단어를 뽑아 '학부모는 ( )다' 문장으로 완성한다. 모둠별로 정리된 문장들을 칠판에 붙이며 의미를 공유한다. 학부모들은 발표를 들으며 함께 유목화하고 모든 참여자가 붙임딱지를 붙여 가장 많이 선택된 3가지를 고른다. '학부모는 따뜻한 동반자',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학부모는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 등이 선정되었다. 이후 학부모회 임원과 희망자가 따로 모여 좀 더 말을 다듬는다. 학부모회 SNS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체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학부모총회에서 ○○초 학부모상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 Explanation

- ☑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 학부모회가 활성화된 학교들은 정기적인(일반적으로 월 1회) 학부모대의원회(누구에게나 개방됨)가 열리며 그 회의에는 학교장과 교감, 교무(학부모 담당교사) 등이 필수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 ☑ 학기초에는 학부모회 체계를 세우고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상에 대해 논의하는 시기는 6월이 적합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안정되고, 학부모회 논의 구조가 안착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사전 기획 회의를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5 원격수업 비전 함께 세우기

2020년, 학교에 학생이 오지 못하고 가정에만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교육 비전과 수업 방식을 만들어야 했다. 학교와 관계 기관은 변화된 상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설명하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학교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교직원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생, 학부모에게 듣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나간다. 학생은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울 기회로 삼는다. 학부모는 온라인 가정 학습의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새로운 수업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물론 이 과정이 모든 학교에서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육주체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 실행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았다. 그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Explanation

- ☑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학교는 그 기간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평가만을 위한 수업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은 행정기관(교육부,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방법 개선, 평가 혁신 등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교육 3주체가 협력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져 창의적으로 협력할 기회가 생겼다.
- ☑ 원격수업으로 수업 방식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적응 속도의 온도 차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적응이 늦은 교사들을 비난하기보다 어떤 점이 힘든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 학교자치기구 조직하기

### 1. 교사회 구성하기

#### 1) 교사회는 필요성 공감부터

- 학교자치 조례에 따른 학교자치기구(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 대해 충분히 알린다.
- 기존 교무회의와 교사회, 교직원회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사들이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A4 정도의 한글 문건이나 메신저를 통해 안내한다.

#### ☑ 교사회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학교자치기구이다.

#### ☑ 교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회칙의 제·개정제에 관한 사항
4.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5.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사회에서 할 수 있는 협의 주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교사들이 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다.

예 원격수업의 방법, 원격수업 플랫폼 정하기, 방역 업무 분담하기 등

#### 2) 교사회 구성하기

- 교사회 임원 선출 일정을 공고한다.
- 교사회 회장과 임원을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다.

### 3) 교사회 운영하기

- 첫 교사회에서 모든 교사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안건을 정하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교사들이 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교사회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조직’으로 교사들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회 안건은 교육과정, 생활지도, 수업, 연수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 교사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 회의 시간 확보가 교사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안건이 있을 때 교사회를 열어 간단히 논의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2. 직원회 구성하기

### 1) 교육주체로서의 자부심과 책무성 인식

-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육의 주체라는 자부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학교자치 조례에 따른 직원의 의미와 협의할 사항을 인식하고 공유한다.

### 2) 직원회 구성하기

- 직원회 임원 선출 일정을 공고한다.
- 직원회 회장과 임원을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다.
- 교육행정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모두를 포함한다.

### 3) 지시사항 전달에서 벗어난 민주적 회의문화 만들기

- 기존 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민주적인 회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 직원회를 따로 두는 경우 직원들 간에 공유가 필요한 주제로 밀도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4) 직원회 운영하기

##### ☑ 직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직원회 안건은 담당업무 현황, 학교 시설물 변화 제안, 연수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 교직원회에 제안할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 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록은 간소하게 작성한다.

### 3. 교직원회 구성하기

#### 1) 교직원회 시작하기

- 학교자치조례에 따른 교직원회에 대해 교직원 모두가 정확한 개념을 공유한다.
- 2월 새 학기 워크숍에서 기존 교무회의와 교직원회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 학교의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 전체 교직원이 모여 교직원회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정을 정비한다.
- 학교자치 조례에 규정된 교직원회 구성방법과 교직원회 협의 안건을 미리 전체 교직원과 공유하면 논의 안건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

##### ☑ 제8조(교직원회)

- 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③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전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⑦ 교직원회의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2) 교직원회 구성하기

- 교직원회 임원 선출 일정을 공고한다.
- 교직원회 의장과 임원을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다.
  - ※ 교원과 직원 중 어느 한 쪽이 배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 3) 교직원회 운영하기

- 학교의 각종 위원회(기획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업무정상화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 학교업무정상화 차원에서 기존 교무회의를 교직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권장한다.
- 회의록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4. 학부모회 구성하기

### 1) 누구나 함께 하는 학부모회

- 학생의 성장은 가정과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학부모는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자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학생,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 스스로도 교육주체의 한 축임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학부모자치를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연수, 간담회 등)를 만들어야 한다.
-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회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 2) 학부모가 주체로 서는 학부모회 만들기

- 학부모가 주체로 서는 학부모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회를 학부모회가 주도해야 한다.
- 첫 학부모회는 학부모회의 철학과 방향을 세우고 많은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활동과 일정을 계획한다.
- 학부모회의 계획을 학생회, 교직원회와 나누며 3주체의 한 축으로 학부모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 3) 학부모회 운영하기

- **첫 학부모총회:** 학부모회 철학과 방향 설정하고, 학부모회 연간 계획 구성하며 학부모회 임원 선발한다.
- **학부모회 조직 및 규정 제정:** 학부모회 임원을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학부모회 조직을 구성하고, 학부모회 규정을 만든다. 학생회, 교직원회와 소통할 방법을 찾고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방법을 마련하면 좋다.
- **학부모회의 정기적 개최:** 학부모회는 월 1회 개최를 권장하고, 학부모회 분과를 만들어 운영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학부모회 소통 강화:** 온라인으로 학부모회 운영 과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부모회를 모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간다.
- **학부모회 평가:** 학년말 학부모회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학부모회 운영 결과를 학교와 공유하면서 사업을 다음 년도까지 이어가면 좋다.

## 5. 학생자치회 구성하기

### 1) 학생자치회 소통, 학생자치회 구성으로부터

- 학생자치회장단을 선거로 구성했다면 학생들의 대표를 뽑은 것이다.
-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 선출이 끝나면,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조직하여 의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은 학생자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자기소개서 서류로 심사하고 경합 시 면접으로 선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 학생자치회의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 이전 년도<br>학생자치회 | 질문                                                                                      | 새 학년도<br>학생자치회 구성 |
|----------------|-----------------------------------------------------------------------------------------|-------------------|
| 학생활동부          | 어떤 학생자치 행사를 준비하는가? 꼭 필요한 활동인가?<br>활동량이 많지는 않은가?                                         | 학생활동위원회           |
|                |                                                                                         | 생활인권위원회           |
| 홍보미디어부         |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가?                                                           | 홍보미디어위원회          |
| 체육부            | 체육부에서 체육대회 진행 외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br>체육 이외에 문화, 예술 지원이 가능한가? 새로운 축제는 어떤<br>부서에서 주관할 것인가? | 스포츠활동위원회          |
| 문화예술부          |                                                                                         | 축제준비위원회           |
| -              | 그밖에 학생자치회 활동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무엇이<br>있는가? 학생자치 동아리 중 학생자치회와 연결할 수 있는<br>부분은 없는가? (신설)       | 예산회계위원회           |
| -              |                                                                                         | 학년자치위원회           |
| -              |                                                                                         | 방송활동위원회           |
| -              |                                                                                         | 민주시민위원회           |

### 3) 새로운 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정하기

-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 각 부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무엇을 할지 협의해 조정한다.
- 각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학생자치회 운영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조율한다.
- 조율된 내용에 따라 함께, 따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



## 2. 활기찬 여름

여름에 싱그러운 녹음이 우거지듯,  
학교자치의 핵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각 교육주체들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자주 회의를 하면서 우리만의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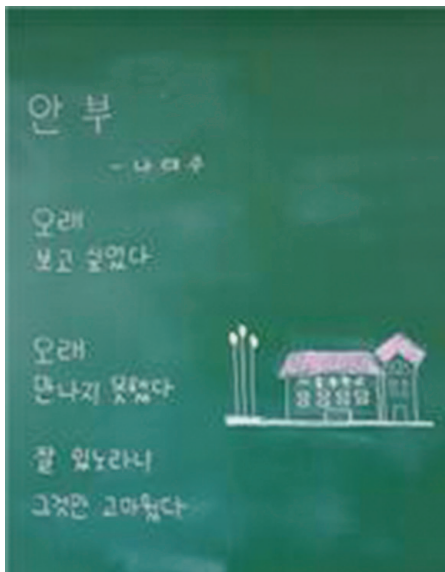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위기의 순간 드러납니다. 2020년, 어렵게 등교한 아이들에게 학교가 무엇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는지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민주주의,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활자로만 인쇄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비접촉 시대의 학교와 자치

시흥중 교사 백원석

### 1.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온라인 교실'

철판 한구석에 이 시를 적고 사진을 찍어 반 아이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렸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담임이 올려주는 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도 점점 식어 들어갔다. 30분 동안 채팅창에는 '네'라는 한 글자만이 두 번 올라왔다.



3학년 어느 담임교사가 해준 말이다. 온라인 수업 풍경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요즘은 매일 아침 9시에 줌(Zoom)으로 화상 회의를 한다.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해, 할 수 있는 것이 늘었다.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고, 그날의 시간표와 공지사항을 안내하면 궁금해 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대답해줄 수 있게 됐다.

지난 '스승의 날'에는 오전에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1시간은 '그동안 학교생활하면서 만났던 선생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왜 존경하게(좋아하게) 되었는지 100자 이내로 적어서 보내기'였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업이 재밌었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다.

10여 분 동안 얼굴을 마주하는 아침 조회만으로는 아이들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생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좋았던 일, 받았던 선물, 서운했던 일, 슬펐던 일 등)'에 관해서도 적어 보내게 했다.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날에 대한 기억들이 꽤 많이 도착했다. 물론 '아빠가 하필 그때 개업하는 바람에 생일파티를 못해서 서운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사업 때문에 늘 중국에 나가 계시는 아빠가 자신의 생일에 맞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셔서 생일파티를 해주신다'는 마음 뭉클한 사연도 만났다.

모두가 처음이라 서툴렀던 온라인 수업,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더 나아지고 가까워진 모양새다.

## 2.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도 교사의 일은 계속된다.

아이들을 만나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2020년 초 세 번의 개학 연기가 발표됐는데, 대부분 교사들은 일주일에 못 해도 두세 번은 출근해 다음 학기를 준비한다. 달라진 1학기 일정에 맞춰 방학 내 짜든 수업 진도와 평가 계획을 손보기 위해서다. 바뀐 상황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다양한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출석 체크와 동시에 교과 담당교사의 일도 시작된다. 'EBS 온라인클래스'에 먼저 접속해 밤새 학생들이 올려놓은 질문은 없는지 확인한다. 그와 함께 우리 반 학생들에게 오늘 EBS온라인클래스의 접속 상태는 괜찮은지, 온라인 교육을 듣다가 어려움은 없는지 채팅창을 통해





확인한다. 아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답임이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다양하게 질문을 던진다.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내용을 반 학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단체대화방에도 올린다.

학생들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교사들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 종전의 수업과 다른 온라인 수업은 그 준비부터 만만찮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논의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최근 여러 학교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회의의 주제는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의 형태와 운영의 문제점’이었다. 현재, 학교들은 온라인 교육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어떤 학교는 출석체크부터 시작해 시간표대로 전 교과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한다. 또 아침 출석체크와 종례만 쌍방향 화상채팅으로 하고 교과 수업은 단방향으로 하는 학교도 있다. 출석체크부터 수업까지 단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 자칫 기술에 매몰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할까 걱정이 된다. 원격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의 얼굴이 어두워 물어보니,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주말 내내 원격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왜 혼자서 고민을 하나? 같이 생각해 보자”고 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운영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교사학습공동체’가 작동한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학생 성취 수준 향상이나 학교공동체 문화 개선 등을 목표로 삼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반성하는 교사들의 학습 조직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빚어낸 온라인 개학. 교사들은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집단 지성의 힘과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온라인 교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예전의 교육 방식으로 전부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와 학생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교사에게 온라인 수업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혼자선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함께하면 보다 멀리 갈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은 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난생처음 맞는 교육 환경에선 공부하고 고민하는 교사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학교는 학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교사도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기에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수업에 적용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부탁하고 싶다. 위기를 뛰어넘을 ‘함께’에는 교사들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이해와 응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3. 이제는 가정의 시간, 학생의 시간

2020년에는 5월에 간신히 아이들이 학교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하다. 학교는 초긴장 상태로 매일 매일을 보낸다. 며칠 전만해도 인근 중학교 학생이 확진자로 판명돼 지역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였다. 다행히 더는 확산되지 않고 조용히 위기를 넘겼지만, 우리 학교, 내 교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학생들은 3주에 한 주만 등교한다지만, 아이들이 있거나 없거나 교사로서는 긴장의 연속이다.

“수행평가를 해보니 아이들이 극과 극이에요. 예전에는 잘은 못 해도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원격수업 기간에 수업 듣는 시늉만 한 아이들은 손을 아예 못 대고,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누군가 시켜서라도 학습을 해온 아이들은 아주 잘해요.”

교사협의회 때 어느 교사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위험 신호다. 스스로 알아서 잘하거나, 집에서 아이 학업을 일일이 챙길 시간과 관심이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학교에선 원격수업도 엄연한 수업인 만큼 얼마 안 되는 등교 기간에 아이들의 배움을 확인해야 하니 수행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편하게 쉴 땐 좋았지만, ‘평가’ 앞에서 아이들은 패배감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특히 아직 어린 중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은 이른 학업 포기, 학교에 대한 흥미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 중학교는 학교 밖의 시선과 달리 누구든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모르는 것들을 채워가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했다. 성적이 낮아도, 조금 내성적이어도, 수업에선 제 나름의 역할을 하며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아지던 차에 코로나19는 배움과 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을 도로 늘려 놓고 말았다.

우리가 모두 실시간으로 겪으며 예상하듯,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번갈아 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갈수록 등교수업보다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어버린 작금의 상황을 아이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같아 안타까워 학부모와의 전화 상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다.



“지금의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등교해서 하는 수업만 수업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원격수업 기간에 학교에서 보내준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라 잘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확인을 해주세요. 꼭 옆에서 지켜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와 자주 대화시간을 갖고 원격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고, 어떤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고, 혹시 부모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도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상담에 응한 학부모 모두가 이 말에 동의했지만 맞벌이 가정 등 집에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땐 모든 것이 아이의 몫으로 남는다. 그러니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잘 챙겨서 묵묵히 하는 아이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어른의 관심과 지지, 격려가 있어야 동기가 부여되는 아이와의 학업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학교의 시간’, ‘교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가정의 시간’, ‘학생의 시간’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싶다. 가정에서 배움과 돌봄이 안 되는 아이를 학교에서 교사 옆에 붙잡아 두고 시키거나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명의 아이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넣어서 수업을 설계하기’에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그 무엇보다 방역의 의무를 먼저 떠올리는 상황에서 학교가 이전처럼 학생들을 껴안기는 쉽지 않은 현실에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학교와 교사가 좋은 콘텐츠와 다양한 디지털 도구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가정과 학생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분명 교육의 위기이지만, 다르게 보면 비로소 교육 3주체가 함께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 4. ‘당연함’이 사라진 일상, 학교도 변화 기회 삼아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학교. 아이들은 집을 나설 때 마스크부터 챙겨야 한다. 등굣길에서 반갑게 손을 맞잡고, 포옹으로 교문 맞이를 하는 대신 이마에 체온계를 들이대고, 손 소독제를 뿌리며 인사를 대신한다. 교실에 들어와서도 친구와 두런두런 모여 앉아 얘기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줄로 놓인 책상에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독서를 하거나 자습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수업 시간에도 서너 명이 모둠을 만들어서 하는 협력학습은 꿈도 꾸지 못하고, 혁신학교 등장과 함께 사라져 가던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협력학습의 기회가 사라진다고 또 일제식 수업이 된다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 기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맘껏 활용하여 평가를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는 성장을 위한 글쓰기 수업을 하면 좋겠다.

기존의 생활교육(생활지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그 중에서 교복에 관한 고정관념도 벗어버리면 어떨까 싶다. 날이 추워지면서 흔히 ‘마이’라 불리는 동복 재킷을 입게 되는데 이 옷은 매일 세탁하기가 어렵다. 코로나19 예방수칙에 의하면,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와서 재킷 소매로 가리고 했다면 그 옷을 다음날 또 꺼내 입으라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겹옷은 매일 갈아입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복, 체육복, 사복을 포함한 자율복을 선택해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물론 자율복에 대한 우려도 이해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일부 혁신학교 중에는 몇 년 전부터 교복 대신 자율복을 입는 곳이 있다. 처음에는 ‘경제적 위화감 조성, 아침마다 무슨 옷 입을 것인가에 대한 실랑이, 단정하지 못한 복장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공청회와 토론회 등 오랜 시간 교육공동체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논의하고 협의해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우려한 만한 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학교의 교복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1년에 190여 일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선택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봤으면 한다. 우리가 그동안 중학생이 되면 당연하게 입어야 한다고 여기던 교복을 안 입어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코로나19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에 교육공동체가 둘러앉아 교복 착용에 관한 것에서부터 그동안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며 관행적으로 하던 것들을 돌아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성찰 없는 관행은 악습이 되기 쉽고, 어이없는 상상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 5. 자치의 경험도 역량도 없이 어떻게 ‘학교자치’를 말할까?

지난 1학기 말에 학교에서는 ‘교직원회’ 규정을 정하고,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전협의는 웅색한 전달 연수로 대체됐고, 고사리 손의 도움도 절실하게 필요한 학기말에 계단식 구조의 시청각실로 장소를 잡은 것부터가 처음부터 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학교자치조례에 협의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우리학교 교직원회의 협의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유일한 질문이 끝나자 곧장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그 협의회를 진행한 담당 부장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 매우 중요한 일을 몇 사람이 모여서 초안을 만들고,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충분한 검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진행되는 것이 어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급임원선거와 흡사했다. 현임교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의장후보 명단이 적힌 종이에 직접 표기해서 바구니에 넣는 형식으로 진행돼 비밀이 유지됐다는 것만 달랐을 뿐이다

2019년 11월에 ‘학교자치조례’가 제정·공표되었다. 조례에 맞게 학교에서도 교직원회를 만들라고 지침이 올해 초에 내려왔고, 학교별로 교직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하라는 공문은 1학기가 끝날 무렵에 내려왔다. 학교에서 학기말에 부랴부랴 교직원회를 조직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학교자치’는 무엇이고, 왜 ‘조례’로 만들어 학교에 내려 보냈는지, 우리학교에 맞는 조직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논의할 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은 다시 3분의 1의 학생만 등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9월 11일까지는 (고3을 제외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라고 방학 중간에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따라서 등교해서 진행하기로 했던 ‘2학기 학급임원선거’도 원격으로 진행해야 했다. 초유의 일이기에 다른 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참고하고자 아는 선생님들을 통해 그 학교들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담임교사의 주도 하에 선거가 진행이 됐으며, 투표도 담임만 알 수 있게 적어 보내는 방식이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비밀선거’가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게 교육공동체에서 용납된 것이다.

하지만 이견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디작은 교육공동체라도 학생들에게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우리 반 학급임원선거는 선거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마음에 학급선관위원들과 급히 논의를 했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만큼 대안을 찾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진행상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으로 끝내고, 각자 대안을 찾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담임이 주도하게 되면, 선거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담임의 의지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결국 학급선관위는 포털사이트에 있는 설문방식을 활용하되, 한 개의 IP에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게 설정하고 익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운영자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선관위원들은 후보등록부터 소견발표회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진행했다. 온라인 선거운동도 3분 이내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유토록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학교자치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교사들 거의 대부분 학창시절에 자치에 대해 배우거나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되었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데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 학급임원선거의 과정도 자신의 경험치에서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을 못 미더워하며 전

과정을 담임이 주도하면서 진행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교자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요원한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혼란은 1학기과 함께 잦아드는 듯 했다. 2학기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또 다른 혼란이 찾아왔지만 지난 3월만큼은 아닌 듯하다. 학교현장의 대응 역량이 그만큼 커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술한 시행착오의 결실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믿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공부와 함께 많은 것을 가르친다. 시민으로의 성장도 교육 목표 중 하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민주 사회의, 시민의 ‘기본’을 우선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효율적인 대처’는 지금보다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그 방식은 신뢰라는 바탕 위에, 원칙은 준수하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교육연구원 홍섭근 연구사의 글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친다.

‘학교자치는 문건이나 정책으로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여백이 있지만 일단 시행해 보는데 초점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하게 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주었지만,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 …… 앞으로 학교공동체를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데서 학교자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 ▶ 모두가 함께하는 학생자치

### 1. 학생자치? 학생회 자치?

요즘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들의 대표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언제나 출마가 가능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의 과정을 거쳐 대표를 선발하며, 학생들은 스스로 자치조직을 꾸린다. 이러한 민주주의 과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학생회의 독립된 자치 공간이 있고, 스스로 학생회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생자치’는 완성된 것일까? 아니다. ‘학생회 자치’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도 ‘학생자치’가 만들어졌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자치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회는 동원된 인력처럼 사용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학생회가 주관한 행사를 평가하기만 해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인데 현재 학생자치는 소수의 학생회로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 학생회 주관 행사가 ‘학생자치’처럼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 2.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배운 ‘민주주의’에 대해 떠올려보자. 아테네에서 시작된 직접 민주정은 인구가 많아지고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 모두가 모일 수 없게 되자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로 바뀌었다. 대의제는 효율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모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학교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첫째, 학생들의 수는 1,000명 내외이고, 학급으로 조직되어 있다.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일 수 있고, 학급 단위로 생각을 모을 수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 일주일에 5일 동안, 6시간 이상 함께 생활한다. 언제든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셋째, ‘학교생활’이라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제도나 규정의 변화로 학생들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3. 학생자치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자치는 교직원 자치, 학부모자치, 학생자치가 단순히 합쳐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도 마찬가지다. 학생들끼리 학교 일을 하는 것을 학생자치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학생자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초등학생에게 전자 투표,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온전히 맡길 수 없다. 새롭지는 않아도 선거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어린 학생들이 차근차근 배워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 교직원이 배려해야 한다. 교직원은 선거 방법과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교육하고, 학부모는 참관자, 개표자 등의 실무를 도와주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감독자가 아닌 조력자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

### 4. 학생자치의 실제



A고등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전체 학생에게 참여를 제안하며, 학생회는 개정과 관련된 행정 사무를 맡았다. 규정개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관심사에 따라 모둠을 만들었다. 참여 학생들은 학생생활 규정을 함께 읽으며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개정할 조항에 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았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을 보고하는 발표회를 열었고, 투표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개정 과정을 진행했으나, 개정안을 통과되지 못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개정규정위원회’를 조직해 이 과정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B중학교에서는 학칙 대신 ‘생활협약서’를 만들기 위해 학급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학생회에서 정리해서, 모든 학생이 운동장에 모여 토론하는 ‘아고라’를 거쳤다. 학교는 1년마다 학교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생활협약서를 점검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C중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년 학생회가 따로 존재한다. 1, 2, 3학년 ‘학년 위원회’를 두고 학생회와 학급 자치회의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 학급 자치 회의, 학급 씨클을 진행한 뒤에 학급 자치 회장들이 학년위원회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다시 학생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학년 자치회장 모임, 학년 선관위 모임, 학년 축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D초등학교에서는 학급임원과 전교임원 제도를 폐지하고, ‘다모임’을 구성했다. 이 학교는 학년 당 2~3개의 학급만 있는 소규모 학교로, 한 학생이 학급임원으로 계속 선출되는 사례가 많아 임원 선출 제도가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를 고착화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과감히 선거를 없애고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학급을 이끌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나 관심 가는 일에 대해 의논하는 ‘학급 다모임’, ‘학년 다모임’, ‘학생 다모임’을 구성해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다.

## ▶ 부모에서 학부모로 슬기로운 변신

### 1.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

‘학부모’는 ‘부모’라는 글자에 ‘학교’라는 의미를 가진 배울 ‘學’자를 덧붙였을 뿐이지만 느낌이 사뭇 다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것 같지만 학부모는 자식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 같다. 이러한 관점은 2010년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공익광고(공익광고협의회/부모의 모습편)에도 투영되어 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위 광고 문구는 내용 자체는 좋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혼나는 느낌이 든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 기관에 보내 학부모가 되었을 뿐인데 비난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과거의 학교도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라고 여기기보다 ‘동원의 대상’, ‘계몽의 대상’, ‘교육 소비자’ 등으로 바라봤다. 개학식, 체육대회, 졸업식 등 학교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불러 다녔고, 자녀 교육만 신경 쓰고 학교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교육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부모자치 프로그램은 주변에만 머물렀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끼리 모여 취미를 공유하고, 봉사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같이 하는 것에 그쳤다.

새로운 학교자치시대에 학교는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배제하고 학교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를 바라보면서, 학교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이해하고 교육 활동을 함께하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 학교 교육 활동 내용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교육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계획하면 가정과 학교의 교육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간 여유가 있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 학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모임을 직장이



끝난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학부모회의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학부모자치를 만들어가야 할까? 학부모는 학교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총회를 학부모가 주도하면 좋다. 교통봉사요원, 급식검수위원 등 학교의 필요로 해야 하는 업무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적 회의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학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새롭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총회 이후 만들어진 학부모 조직을 통해 1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설계한 후 학생회, 교직원회와 협의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학교의 학부모회는 학교자치의 주체로 설 수 있다.

## 2. 학교자치 주체로 서는 학부모

### 1) 학부모의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다.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자녀 때문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만 할 수 없다. 다만 그 마음의 크기를 다른 학생, 학교로 넓히면 좋다.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교직원이 나서서 학부모의 마음을 먼저 열면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A중학교에서는 매주 목요일 저녁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슬비 사랑 학부모교실'이 열린다. 이 교실의 교사는 교장으로, 학부모가 가진 '내면 아이'를 발견하게 하여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 '내 자녀'의 문제를 '모든 자녀'의 문제로 함께 생각하게 하였다.

이후 학부모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 나섰고, 선배 학부모가 후배 학부모를 교육하는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

### 2) 학부모자치 활동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학부모 활동도 학교와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교육 활동에 참여해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학부모가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 학교의 주요 의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 좋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는 학교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교사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며, 새로운 의견을 학교에 제안할 수 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안의 제시는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B중학교는 학부모교실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학급별로 '회복적 서클 정서지원단'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였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들은 독서교육 모임을 하면서 학급 전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싶었다. 학부모 몇 분이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매일 책 읽기를 직접 하겠다는 표현을 했고, 교사는 필요한 도서, 모임 장소, 간식 등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매일 책을 들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 활동의 특별한 점은 국어 수업과 연계된 활동까지 이어져서, 학부모 활동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 3) 학부모는 연결되고 계속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연결되면 행복해진다. 학교 내 학부모 모임을 넘어서 인근 학교, 다른 마을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고민을 하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관점에서 학부모자치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관심을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기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 진정한 '학부모'로 성장한 사람을 아이가 졸업했다는 이유로 배제하지 말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좋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3년 2월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이후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부모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학부모 참여지원센터'를 만들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사람책' 프로그램, 경기교육사랑 네트워크 구성, 학부모 정책 토론회 등의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 민주적으로 회의한다는 것은?

### 어떤 것을 회의 주제로 삼을까?





## 학생회와 학부모회와 교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할까?



## 다수결로 회의를 종결해도 될까?





### 3. 가을걷이 그리고 꿈꾸는 겨울

가을에는 알곡을 수확해서 사람들과 나눕니다.  
 학교는 자치의 결과물을 성찰해서  
 학교 구성원들과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겨울이 되면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합니다.  
 학교교육주체들은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학교자치를 되돌아보는 것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실행한 것을 성찰하고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기 위해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 ▶ 학교자치 되돌아보기

#학교자치\_되돌아보기 #목적 #보고서\_제출

학교자치를 되돌아보는 것은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건가?



학교자치를 되돌아보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1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학교의 자치 정도를 성찰해 볼 수 있으며, 틀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듭니다.

교육청은 학교자치를 지원할 뿐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올해 우리의 학교자치에 대해 더 세심하게 토론하고,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합니다.

### #학교평가의\_한\_항목으로\_학교자치를\_되돌아보기 #학교민주주의\_진단

#### 학교자체평가의 한 항목으로 학교자치를 점검해도 될까?



학교들은 해마다 학교평가를 합니다. 학교평가를 할 때 하나의 항목으로 학교자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치기구들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구성원들의 토론주제로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에 대해 다뤄보는 것도 좋습니다.

### #학교자치\_점검의\_주제 #학교\_구성원\_전부

#### 학교자치를 되돌아보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 한꺼번에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토론해야만 하나?



학교의 한 해 살이를 되돌아보는 주체는 학교 구성원 모두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두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똑같은 내용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치기구(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에 따라 관심도와 참여 영역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자치를 돌아본 후, 함께 모여 공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자치라는\_이름의\_행정업무 #생기부\_성적처리로\_바쁘데\_학교자치평가회\_꼭\_해야하나

####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학교자치를 되돌아본다는 것이 또다른 행정업무로 느껴진다?



학기 말 학교는 밀려드는 행정업무로 회의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자치평가회를 통해 업무를 간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줄일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회의를 자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쁜 학년 말, 학교 상황에 따라 부담되지 않는 논의의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학교자치\_점검의\_실제 #효율적이고\_민주적인\_방법은

#### 학교자치를 돌아보는 방법이 설문조사뿐일까?



학교자치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설문조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같은 항목을 정량적으로 설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영역(인식 개선/제도적 장치 마련/학교자치기구 조직/ 학교 민주화 실천/교육과정 자치/ 재정(예산) 자치/인사 자치)을 선택하여 모듈별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대표와 교사가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방식도 있고,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자체로 자치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전체 회의에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학교에서 정하면 됩니다.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가 처음이라 어떤 항목을 점검할지 막막하다면, 이 자료집 Ⅲ부에 실려 있는 “학교자치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 #학교자치\_점검내용\_공유하기 #결과를\_바탕으로\_계획\_수립하기

#### 논의하고 토론하면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되돌아본 학교자치 운영 실태 내용이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들여 토론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교육청 제출용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형식과 절차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워크숍 예시(초등)

1. 일시 : 2020년 ○월 ○일 ~ ○월 ○일
2. 장소 : 영어교실
3. 대상 : 2020학년도 ○○초학교 전 교직원
4. 목적 :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워크숍을 통한 새학년 준비
5. 세부 프로그램
  - 가. 5일 간 진행할 경우

|             | 시간 운영       | 주제                          | 대상<br>(형식)           | 세부 내용                                                                                    | 비고                   |
|-------------|-------------|-----------------------------|----------------------|------------------------------------------------------------------------------------------|----------------------|
| 1<br>일<br>차 | 09:00~10:00 | 전입교사 환영                     | 전교직원<br>(써클)         | - 전입교사 환영                                                                                | 친목회                  |
|             | 10:00~12:00 | 교직원회 안내,<br>구성<br>주체별 상 세우기 | 전교직원<br>(워크숍)        | - 비전과 학교상 돌아보기<br>- 교사상, 학생상 세우기                                                         | 교직원회<br>의장<br>교감, 교무 |
|             | 13:30~16:40 | 우리 만남<br>(비폭력대화)            | 전교직원<br>(써클)<br>(모둠) | - 다시, 시작하면서 놓치지<br>말아야 할 것<br>- nvc 강사와 함께 나 발견하기                                        | 외부<br>강사             |
| 2<br>일<br>차 | 09:00~12:00 | 아이들과의<br>첫 만남<br>(생활교육)     | 전체교사<br>(워크숍)        | - 첫 만남 어떻게 준비할까?<br>- 적응 교육 주간 동안 할 수<br>있는 공동체 활동 소개,<br>연습하기<br>- 학년별 적응주간 교육계획<br>세우기 | 생활<br>교육 담당          |
|             | 13:30~16:40 | 2015<br>개정교육과정<br>살펴보기      | 전체교사<br>(워크숍)        | - 2015 개정교육과정 주요<br>내용 및 총론 요약 발표하기<br>- 교과목표, 학년목표 살피기<br>- 학년별 교육목표 세우기                | 연구부장                 |



|             |             |                            |               |                                                                                                                                                                   |               |
|-------------|-------------|----------------------------|---------------|-------------------------------------------------------------------------------------------------------------------------------------------------------------------|---------------|
| 3<br>일<br>차 | 09:00~12:00 | 학생의 성장을<br>일깨우는<br>교육과정 실현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의 의미 살피기</li> <li>- 교육과정 재구성을 왜 하는가?</li> <li>- 배움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의 의미, 내용, 형식, 점검 및 피드백 방법, 평가와 연결)</li> </ul> | 6학년부장         |
|             | 13:30~16:40 | 학년교육과정<br>설계하기             | 교사<br>(학년별)   | - 학년별 교육과정 설계 시간                                                                                                                                                  | 학년별<br>(학년부장) |
| 4<br>일<br>차 | 09:00~12:00 | 학생들과<br>학교비전<br>공유하기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특성에 맞게 학교비전 공유하는 방법 제안</li> <li>- 학년별로 모여 학교비전 공유하기</li> </ul>                                                         | 3학년부장         |
|             | 13:30~16:40 | 학년교육과정<br>설계하기             | 교사<br>(학년별)   | - 학년별 교육과정 설계 시간                                                                                                                                                  | 학년부장          |
| 5<br>일<br>차 | 09:00~12:00 | ○○학교<br>생활교육<br>A부터 Z까지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하기</li> <li>- 학급 약속 세우기</li> <li>- 학생생활약속</li> <li>- 학생생활위원회 절차 살펴보기</li> </ul>                            | 교무부장          |
|             |             | 학습공동체 계획<br>세우기            | 전체교사<br>(워크숍) | - 우리들의 전학공 세우기                                                                                                                                                    | 2학년부장         |
|             | 13:30~16:40 | 학년교육과정<br>설계하기             | 교사<br>(학년별)   | - 학년별 교육과정 설계 시간                                                                                                                                                  | 학년별<br>(학년부장) |

## 나. 3일 간 진행할 경우

|             | 시간 운영       | 주제                          | 대상<br>(형식)           | 세부 내용                                                                                                  | 준비               |
|-------------|-------------|-----------------------------|----------------------|--------------------------------------------------------------------------------------------------------|------------------|
| 1<br>일<br>차 | 09:00~10:00 | 전입교사 환영                     | 전교직원<br>(써클)         | - 전입교사 환영                                                                                              | 친목회<br>꽃다발       |
|             | 10:00~12:00 | 교직원회 안내,<br>구성<br>주제별 상 세우기 | 전교직원<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과 학교상 돌아보기</li> <li>- 교사상, 학생상 세우기</li> </ul>               | 교직원회<br>의장<br>교감 |
|             | 13:30~16:40 | 우리 만남<br>(비폭력대화)            | 전교직원<br>(써클)<br>(모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시,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li> <li>- nvc 강사와 함께 나 발견하기</li> </ul> | 외부<br>강사         |



|             |             |                                    |               |                                                                                                                                                                    |             |
|-------------|-------------|------------------------------------|---------------|--------------------------------------------------------------------------------------------------------------------------------------------------------------------|-------------|
| 2<br>일<br>차 | 09:00~12:00 | 2015<br>개정교육과정<br>(총론&교과목표)<br>살피기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개정교육과정 주요 내용 및 총론 요약 발표하기</li> <li>- 교과목표, 학년목표 살피기</li> <li>- 학년 교육목표 세우기</li> </ul>                                | 연구          |
|             | 13:30~16:40 | 아이들과의 첫<br>만남<br>(생활교육)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만남 어떻게 준비할까?</li> <li>- 적응 교육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소개 및 해보기</li> <li>- 학년별 적응주간 교육과정 세우기</li> </ul>                       | 생활<br>교육 담당 |
| 3<br>일<br>차 | 09:00~12:00 | 학생의 성장을<br>일깨우는<br>교육과정 실현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의 의미 살피기</li> <li>- 교육과정 재구성을 왜 하는가?</li> <li>- 배움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의 의미, 내용, 형식, 점검 및 피드백 방법, 평가와 연결)</li> </ul>  | 담당 교사       |
|             | 13:30~14:30 | 학습공동체 계획<br>세우기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들의 전학공 세우기</li> </ul>                                                                                                   | 학년<br>부장    |
|             | 15:00~16:40 | ○○학교<br>생활교육<br>A부터 Z까지            | 전체교사<br>(워크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교육 어려운 점 나누기</li> <li>- 기초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하기</li> <li>- 학급 약속 세우기</li> <li>- 학생생활약속</li> <li>- 학생생활위원회 절차 살펴보기</li> </ul> | 교무<br>부장    |

## 6. 참고 사항

가.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고민을 드러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전학공 계획을 함께 세우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학년의 특성과 차이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1년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 교육과정 재구성 시간을 전체 워크숍 기간 동안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워크숍 예시(중등)

1. 일시 : 2020년 ○월 ○일 ~ ○월 ○일
2. 장소 : 1층 도서관 및 체육관
3. 대상 : 2020학년도 ○○중학교 전 교직원
4. 목적 : 학교 철학과 비전 공유, 구성원 간의 단합을 통한 효율적인 새 학기 준비
5. 세부 프로그램

### 〈첫째 날〉 반갑습니다!

| 시간          | 프로그램                                                                                                                                                                    | 진행자 / 강사 | 비고                            |
|-------------|-------------------------------------------------------------------------------------------------------------------------------------------------------------------------|----------|-------------------------------|
| 09:00~09:30 | 환영인사/전입 교사 소개 및 업무 분장 발표                                                                                                                                                | 교무부장     | 1층 도서관                        |
| 09:30~10:30 | 혁신학교 비전 공유                                                                                                                                                              | 혁신부장     | 1층 도서관                        |
| 10:30~10:50 | 우리 학교 교육과정 알기                                                                                                                                                           | 교무부장     | 1층 도서관                        |
| 11:00~12:50 | 공동체 놀이로 서로의 마음 열기                                                                                                                                                       | 외부강사     | 체육관<br>/서클, 의자33개             |
| 12:50~13:50 | 부서별 점심 식사                                                                                                                                                               | 각부 부장    | 교직원 식당                        |
| 13:50~14:00 | 십시일반 몸풀기                                                                                                                                                                | 혁신부장     | 체육관                           |
| 14:00~15:00 | 혁신학교 철학 나누기 - 모둠별 토의 :<br>월드카페<br>1) 좋은 수업이란?<br>2) 교사로서 지녀야 할 가치와 자질은?<br>3) 어떻게 하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만들 수 있나?<br>4) 공동체 의식과 배려를 키우는 학급활동, 행사는?<br>5)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 3학년 부장   | 체육관/<br>포스트잇,<br>이젤패드,<br>사인펜 |

|             |                                                                               |                        |                   |
|-------------|-------------------------------------------------------------------------------|------------------------|-------------------|
| 15:10~16:50 | 회복적 생활교육 바로 알기                                                                | 외부강사<br>(학생생활<br>인권부장) | 1층 도서관<br>(간식 준비) |
| 16:50~      | 교과협의회 - 학년 및 교과 확정 및 교과서<br>배부/<br>이후 자율적인 학년별 모임 - 교무실 좌석 배치<br>및 이동/교실 둘러보기 | 교무부장<br>/학년부장          | 도서관/각<br>교무실      |

〈둘째 날〉 함께 새로워집니다

| 시간          | 프로그램                                                                            | 진행자 / 강사                        | 비고               |
|-------------|---------------------------------------------------------------------------------|---------------------------------|------------------|
| 09:10~10:50 | 혁신 학교에서 교사로 성장하기                                                                | 교사<br>○○○                       | 1층 도서관           |
| 11:10~12:00 | 2020 ○○중,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br>(동영상 시청+자유학기제,<br>프로젝트수업소개+전학공<br>+학기말프로그램+신학기OT사례발표) | 혁신부장<br>1학년부장<br>2학년부장<br>3학년부장 | 1층 도서관<br>포스트잇   |
| 12:00~14:00 | 학년별 점심 식사                                                                       | 학년 부장                           | 식당               |
| 13:50~14:00 | 교직원회 구성 안내, 행정실 및 학교 직원소개                                                       | 교직원회<br>의장                      | 전 교직원            |
| 14:00~14:05 | 십시일반 몸풀기                                                                        | 교사<br>○○○                       | 1층 도서관<br>(책상정돈) |
| 14:05~15:30 | 2020 ○○중 사용설명서<br>(디지털 교과서 연수+학교밴드,<br>학교종이앱활용법+상담실,<br>보건실안내+전학공-1박2일 워크숍 협의)  | 교사<br>○○○<br>교무부장<br>혁신부장       | 1층 도서관           |
| 15:40~17:00 | 2020 생활지도 어떻게 할까?                                                               | 각 학년부장                          | 1층 도서관           |



### 〈셋째 날〉 수업이 가장 우선입니다!

| 시간          | 프로그램                                   | 진행자 / 강사       | 비고             |
|-------------|----------------------------------------|----------------|----------------|
| 09:10~09:20 | 놀이로 시작해요                               | ○○○            | 1층 도서관         |
| 09:20~09:40 | 〈알림〉 전학공, 공개수업 및 신학기 OT 연수<br>최종 안내    | 혁신부장           | 1층 도서관         |
| 09:40~10:00 | 2020 평가 계획 안내                          | 연구부장           | 1층 도서관         |
| 10:20~12:00 |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수립 1부<br>협의 내용 발표 및 공유 | 1학년 부장<br>연구부장 | 1층 도서관<br>포스트잇 |
| 12:00~13:30 | 점심식사 및 학년별 협의회: 수업공개 순서<br>정하기         | 학년부장           |                |
| 13:30~15:30 |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2부<br>협의 내용 발표 및 공유       | 1학년 부장<br>연구부장 | 1층 도서관<br>포스트잇 |
| 15:30~      | 업무 인수인계 및 배분, 새 학기 준비                  | 교무부장           |                |



## ▶ 학생자치회 인수인계 워크숍

### 1. 학생자치회 집중회의 준비!

- 학생자치회가 구성되면 선후배 교류를 통해 새 학년 준비
- ‘인수인계 워크숍’은 학생자치회의 첫 번째 중요한 집중회의
- 1~2월에 인수인계 워크숍, 3월 중 학생자치회 계획 세우기 워크숍, 8월 중 학생자치회 중간점검 및 축제 준비 워크숍 진행 가능
-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학생들이 집중회의에서 무엇을 나눌지 정리

### 2. 인수인계 워크숍

- 일정

| 시간          | 내용                              | 비고         |
|-------------|---------------------------------|------------|
| 14:00~15:30 |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수고했어요!          | 선후배 친교의 시간 |
| 15:40~16:30 | 민주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                | 전년도 학생회장   |
| 16:40~18:00 | 부서별 인수인계                        | 다 같이       |
| 18:00~19:00 | 저녁 식사                           | 다 같이       |
| 19:00~20:00 | 신임 임원단 계획 세우기(선배 임원들과 같은 모둠 구성) | 다 같이       |
| 20:00~21:00 | 신입생환영회 및 2, 3차 집중회의 준비 계획 논의    | 다 같이       |

- 참석: 전임 학생회, 신임 학생회, 담당교사
- 부서별 1년을 평가하고, 다음 학년도에 보충하거나 덜어낼 것을 찾기
-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따로 모둠을 구성하여 새로운 계획을 미리 세우기
- 신임 임원단은 계획을 선배들과 공유하며 수정, 보완
- 담당 교사가 함께 참석하여 예산 계획 등을 함께 논의
- 2, 3차 집중회의 준비



### 3. 이렇게 진행하면 도움 됩니다!

- 학생자치회와 학사일정 달력에 함께 회의 일정과 행사 일정을 정리
- 신입생들과 함께 학생자치회를 꾸리는 방안을 찾기에 적당한 시기
- 필요 없는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집중
- 미리 회의 일정을 알리고, 정기적인 회의를 공지
- 학생자치회의 행사, 회의 일정을 미리 교사회, 학부모회와 공유
- 학생자치회 운영 협조 사항을 학생들이 2월 연수에 발표



## ▶ 학부모회 1, 2월 준비하기

### 1. 학부모회 인수인계 준비하기

- 1) 학부모회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가 중요함.
- 2) 학부모회 특성상 차기년도 학부모회는 3월 중순에 구성이 완결됨에 따라 기존 학부모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3) 학부모회 주요 사업 평가는 학부모회 자체 사업, 학교교육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및 연수, 동아리 운영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성과와 한계, 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함.
- 4) 학부모회 활동 자료집 만들기
  - 사업 평가뿐 아니라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모아 자료집으로 만들면 개인에게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 학부모회에는 역사가 됨.
  - 전체 학부모회 회원에게는 PDF 파일 형식으로 공유하고 원고 제공한 학부모 회원용과 학부모회, 학교보관용으로 일부를 인쇄하여 활용함.

### 2. 신입생(졸업생) 학부모 교실 준비하기 (초등)

- 1) 신입생학부모에게 학부모회 활동 안내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 공유
- 2)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를 위한 고민과 선경험이 있는 학부모들과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설명회 형식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함.
- 3) 중고등학교 학부모회의 경우 중3, 고3 이 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실을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음.





### 3. 학부모회 임원 및 대의원회 워크숍 예시 (덕양중 학부모회 사례 참고 재구성)

| 시간    | 일정                                                                                                  |
|-------|-----------------------------------------------------------------------------------------------------|
| 사전 준비 | - 편안한 공간 구성 : 원형으로 참가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리 배치<br>(가운데 러그 위에 꽃과 인형, 초등 준비, 잔잔한 음악)                        |
| 20'   | - 몸과 마음 풀기 : 자기소개와 인사 나누기 (느낌카드나 이미지 카드 등 을 활용하여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 필요에 따라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공동체 놀이로 진행할 수도 있음) |
| 40'   | - '○○학부모와 나는?' : 학부모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 고민, 보람 나누기<br>(모둠으로 구성 : 학년, 학부모회 신규임원 고루 배치)                     |
| 30'   | - 학부모회 사업 평가, 학부모회 조직 구성 및 역할 안내                                                                    |
| 30'   | - 학부모회 활동 제안, 참여 소감과 다짐 나누기                                                                         |



# III

## 학교자치 도움 자료

|                     |    |
|---------------------|----|
| 1. 학교자치 운영방안 모형     | 70 |
| 2. 프로젝트 실행과제 예시     | 72 |
| 3. 회의 진행과정 및 절차     | 74 |
| 4. 교직원회 운영규정 (예시안)  | 76 |
| 5. 교사회 운영규정(예시안)    | 79 |
| 6.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예시안)  | 82 |
| 7. 교사회, 교직원회 안건 예시  | 86 |
| 8. 학교자치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89 |
| 9.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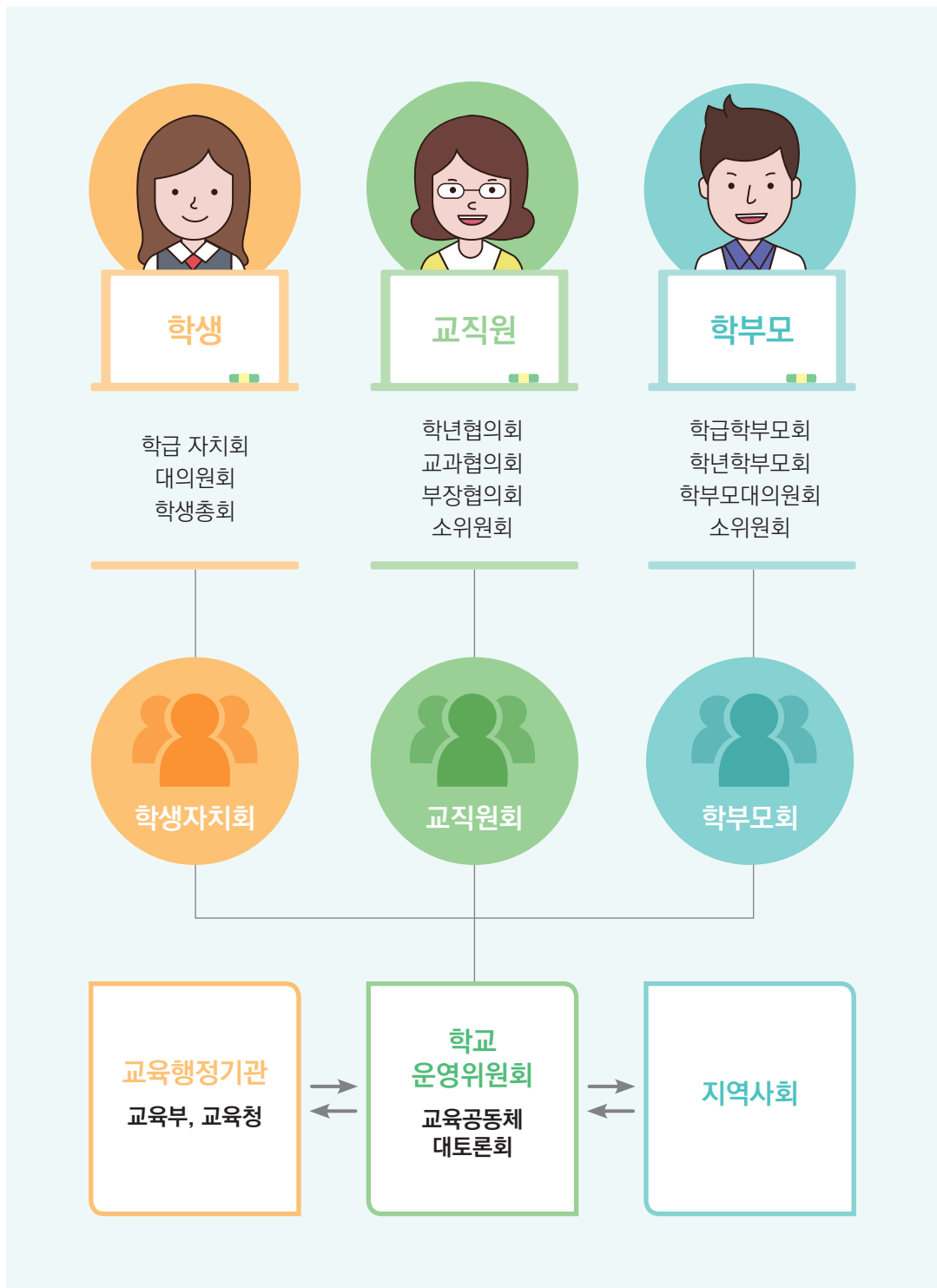
## 1. 학교자치 운영 방안 모형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목적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교자치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학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의사결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학교자치의 의사결정 구조는 소수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사결정 구조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학교자치는 학교장이 학교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학교 구성원이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소위원회에 학생회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가 모여 학교자치기구 협의회를 구성한다. 각 자치기구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자치기구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 운영에 반영한다. 학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참여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학교는 학생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서고, 지역, 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학교자치를 토대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프로젝트 실행과제 예시

### 1)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 교원업무정상화 (참고 :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관행개선 지침)

#### 1단계

- 교직원회 소위원회 구성
- 학교 교육활동 및 업무분석(학교 업무 재조직)

#### 2단계

-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찾기
-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토론

#### 3단계

- 교직원회 안건 발의 및 의결
- 업무분장(안) 구성 및 안건 발의

#### 4단계

- 학교업무분장(안) 실행
- 학교업무 효율화 시스템 정비

#### 5단계

- 교직원회
- 교원업무 정상화 평가 및 보고

-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참고 :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지침)

#### 1단계

- 교직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구성
-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 포함하여 구성

#### 2단계

- 학교교육과정 공유와 성찰
- 학교 특성 분석
- 학부모회, 학생회 의견 조사
- 학교교육과정의 평가
- 학교교육비전 확인하기



## 3단계

- 학교교육과정 영역별 대토론회 쟁점 정리
-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쟁점 토론
- 학교교육과정 제안하기

## 4단계

- 학교교육과정 정리 및 작성
- 학교교육과정 정리

## 5단계

- 학교교육과정 공유
- 학교교육과정 세부내용 정리

## 2)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문화 만들기

-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참고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지침)

## 1단계

### 학교규칙위원회 구성

- 학생회, 학부모회 대표 포함하여 구성

## 2단계

### 학교규칙위원회 운영

- 학교 특성 분석
- 학부모회, 학생회 의견 조사
- 학교생활 분석하기
- 인권, 자율,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인권 방안

## 3단계

### 학교생활인권규정 대토론회 쟁점 정리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쟁점 토론
-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실천방안 제안하기

## 4단계

### 학교생활인권규정 정리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만들기

## 5단계

### 학교생활인권규정 공유

- 학교생활인권규정 홍보



## 3. 회의 진행과정 및 절차

### 1) 민주적 회의는 왜 필요할까요?

협이란 사전적 의미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협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에 아쉬움을 갖는 협의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민주적 협의는 혼자만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많은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단지성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나누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활동의 질이 높아집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민주적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경험이 쌓이고 이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최고의 실천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2) 민주적 회의를 위해 이렇게 바꾸어 볼까요?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독려
- 회의 운영규칙 제정 등 제도적 보완
-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존중
- 단순 전달사항 위주가 아닌 각 안전에 관한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 전환

### 3) 회의 준비 절차

주제  
제안

-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면 학교 구성원 누구든지 제안 가능

자료  
준비·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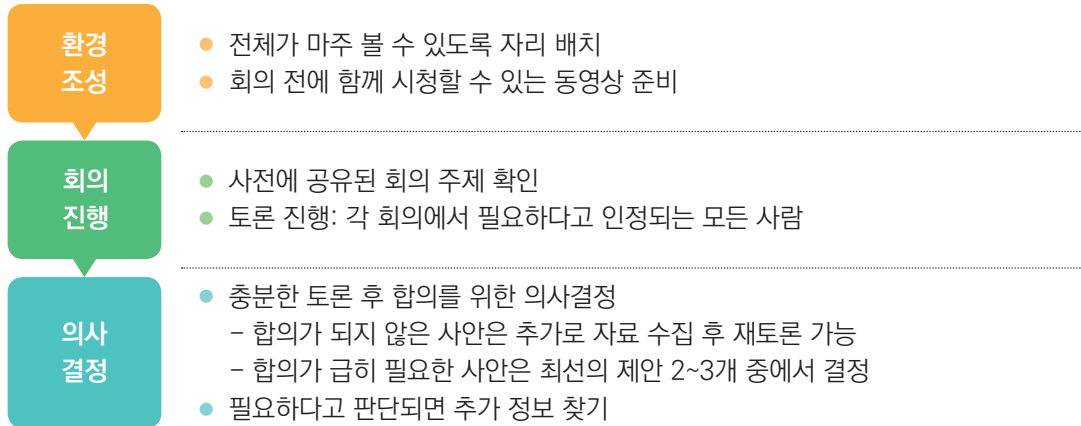
-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아 회의 주제 결정
- 안전 제안자, 해당 부서는 회의 자료 준비
- 회의 2~3일 전 모든 구성원에게 회의 자료 제공

자기 생각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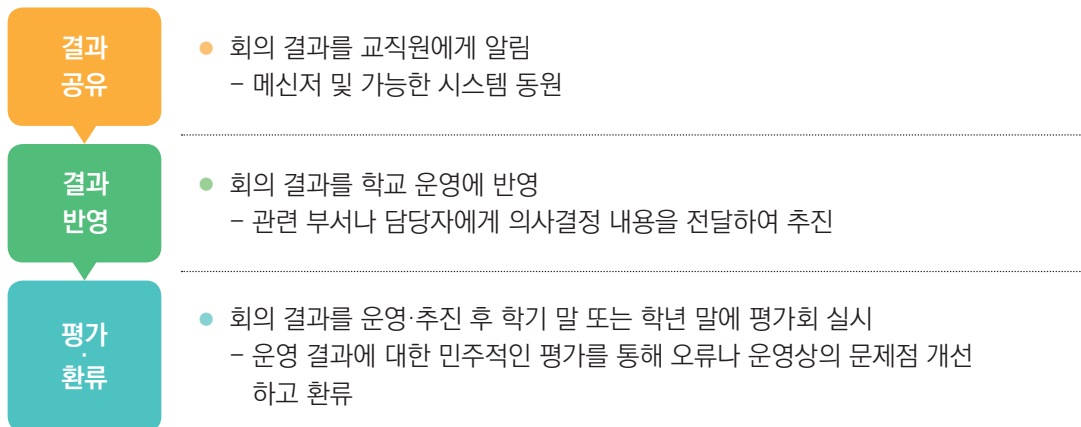
- 공유된 회의 자료 읽기
-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정보 찾기



#### 4) 회의 진행 절차



#### 5) 회의 결과 반영 절차



참고 : [리플렛] 안건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안내

## 4. 교직원회 운영규정 (예시안)

학교자치조례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 공통으로 기본적인 것만 예시로 제시하였고,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학교 교직원회 운영규정 (예시안)

제정 ○○○○년 ○○월 ○○일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학교 교직원회라 한다.

**tip** 교직원회라 하더라도 조례 제2조 8항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회 민주적인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구성)** 교직원회는 ○○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파견자는 그 기간 동안 재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조직 및 역할)** ① 교직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간사 1인을 두며 의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tip** 학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누구나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② 의장은 교직원회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교직원회의 준비, 회의결과 처리 및 공표 등을 담당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이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이 정한 교직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안전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 교직원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교직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학교운영의 각종 사항에 관련된 각종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tip** 학교에 따라, 제 5조 안에 부장회의(기획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업무정상화 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제3장 교직원 회의 운영

**제6조(소집)** ① 교직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매월 첫째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tip** 정기회의는 매달 개최를 권장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함

**제7조(의안 제출 및 발의)** ① 교직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교직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및 안건 제안 등은 사전에 공지하여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한다.

**제8조(의결)** ① 교직원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공개의 원칙)** 교직원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교직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결과만 간단히 개조식으로 기록하여 공지한다.

**tip** 업무 간소화를 위해 회의록은 간단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협의사항)**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전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재협의)** 학교장은 교직원회 의결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중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거를 들어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tip** 의결된 안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힘든 여러 상황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해 재협의 규정을 둠

**제13조(규정의 개정)** 규정은 정기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학생회, 학부모회의 대표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가 있을 경우, 교직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tip**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학교자치기구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각 기구의 대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기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0월 0일 부터 시행한다.



## 5. 교사회 운영규정(예시안)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르면 교사들로 구성하는 교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회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사회칙(예시안)

제정 2000년 00월 00일  
1차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조(명칭)** 교사회 명칭은 '00학교 교사회'라 한다.(이하 교사회)

**제2조(목적)** 교사회는 00학교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구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사로 한다. 다만, 휴직 및 파견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tip** 기간제 교사는 당연 포함이며, 강사, 휴직자, 파견자의 회원 인정 여부는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제4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교사회 협의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교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5조(임원)** ① 교사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간사를 둔다.

② 임원은 교사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교사회를 대표하고, 교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사회에서 정한 사람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조직)** ① 교사회는 매년 3월 중에 조직한다.

**tip** 교사회 조직 시기를 정해 놓은 이유는 교사회 특성상 정기회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특별한 조직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교사회 임원 선거 등을 통해 교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1년 중 특정한 시기에 조직함을 명시한 것임)

- ② 교사회에는 학년별(부서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둔다.

**제7조(회의 운영)** ① 교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tip** 교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만 소집하는 이유는 회의가 많으면 교사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할 때만 가볍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

- ② 교사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④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회의 결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협의 사항)**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회칙의 제·개정제에 관한 사항
4.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 사항
5.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1의 발의로 제안되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0조(위임 규정)**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6.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예시안)

※ 본 학생자치회 규정은 예시이며 학교의 여건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명칭]** 이회는 OOOO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 제3조[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학생총회 등으로 구성한다.

### 제4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운영위원회와 학급대표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이 있다.



4. 의결 전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5. 대의원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학교장과의 협의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6.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1. 각 부는 총무부, 학습·독서부, 문화·행사부, 홍보부 등의 부서를 두고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의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 제6조[학생총회]

-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 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협의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2. 각 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3. 각 부의 부원 1인(1,2,3학년)

**제9조[임원의 임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 ④ 각부 부원은 부장을 도와 해당 부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0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4.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선출은 본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5장 3절의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에 따른다.
- ② 부장, 차장, 부원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 부원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하며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2.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학, 질병, 취한면제, 유예, 징계, 기타 등)에는 제2항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부장, 차장, 부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선거는 11월 중에,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부장, 차장은 12월 중에 대의원회의 협의로 선출한다.
-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11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12조[임원의 해촉]**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 제13조[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

-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로 지정한다.
- ② 학생자치회 자문위원회는 교감, 학교생활인권부장,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학생자치회 운영규정 개정]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절차를 따른다.

## 7. 교사회, 교직원회 안건 예시

### 학교 업무 정상화

- 학교 업무 정상화 방안  
(업무 정상화 t팀 구성, 업무조정 협의)
- 위임전결규정 정비
- 각종 위원회 운영(통폐합)

### 교원 인사

-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개정 및 활성화
- 담임 보직교사 업무 배정 원칙 결정
- 교원포상/교원감축 초빙 등
- 각종 평가 및 가산점 부여 기준  
(다면평가 등 평가위원 선출 기준, 평가 기준)

### 학교 교육 운영

- 교육활동 연간 계획 수립
- 등교 및 수업시간 등 일과 운영
- 학사일정 협의
- 각종 공모 및 지정 사업 계획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방안
- 교직원 동아리 운영

### 학교 예산 운영

- 교육활동 지원 예산 편성
- 여비규정에 따른 학교 예산 활용방안  
(여비, 강사비, 보결수당, 자율연수 지원비 등)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 교육환경 개선 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 방안

### 교육과정 편성

- 학교 비전 및 교육목표 설정
- 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단위 배당  
(평가 계획, 학업성적관리규정)
-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교과통합, 연계수업 방안)
- 학교 교육과정 평가

### 학생생활 교육

- 학생자치 활성화
- 학생생활 지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학생생활 지도 방안)
- 학생 동아리 활성화 방안



## 1. 유,초등 교직원 회의 주제 예시

| 월  | 회의 주제                                                    | 비고                       |
|----|----------------------------------------------------------|--------------------------|
| 1  | 차년도 인사 업무(기간제교사 채용, 업무분장, 담임배정 등)                        |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br>학교자치 공감하기 |
| 2  |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br>차년도 방과후교육 계획<br>차년도 예산 편성               |                          |
| 3  | 각종 위원회 및 자치기구 구성·정비·규정개정<br>학생 평가 계획 및 학생평가 관리규정         |                          |
| 4  | 도서, 물품 구입 관련 회의<br>학교회계 추경예산 편성 및 조정                     |                          |
| 5  | 학부모 참관수업 계획                                              |                          |
| 6  | 동료장학 및 수업나눔 계획(유)                                        |                          |
| 7  | 여름방학 계획 수립<br>1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                          |
| 8  | 교원평가, 학교평가                                               |                          |
| 9  | 차년도 교과서 선정                                               |                          |
| 10 | 차년도 학생모집 계획(유)                                           |                          |
| 11 | 교사 다면평가 계획 수립<br>학교회계 추경예산 편성 및 조정                       |                          |
| 12 | 교육과정 운영 평가회<br>차년도 학사일정<br>겨울방학 계획 수립<br>졸업식 및 입학식 행사 계획 |                          |

## 2. 중등 교직원 회의 주제 예시

| 월  | 회의 주제                                                                                                  | 비고                    |
|----|--------------------------------------------------------------------------------------------------------|-----------------------|
| 1  | 교육목표 선정 및 교육계획서 작성 (학사일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과정 운영 등)                                                        |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 학교자치 공감하기 |
| 2  | 학교 장기목표 세우기 및 학교 중점 교육과정 선정<br>차년도 인사 업무(기간제교사 채용, 업무분장, 담임배정, 담임/보직교사 배정 원칙 등) 예·결산 협의 및 조정           |                       |
| 3  | 각종 위원회 규정 개정 및 구성<br>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별 평가규정 마련<br>1학기 교육과정설명회 운영 계획<br>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생활규정/생활협약 제정 등) |                       |
| 4  | 학교평가 지표 선정 및 실시 계획<br>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체육대회 추진 계획<br>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중학교)<br>416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 계획              |                       |
| 5  |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 계획<br>수업혁신과 자유학기제 대비 수업방법 개선 방안                                                            |                       |
| 6  | 학교회계 추경예산편성 및 조정                                                                                       |                       |
| 7  | 1학기 교육과정 평가회                                                                                           |                       |
| 8  | 2학기 교육 계획 수립<br>여름방학 계획 수립을 위한                                                                         |                       |
| 9  | 2학기 교육과정설명회 운영 계획                                                                                      |                       |
| 10 | 축제 운영 계획<br>교원평가 실시 방안                                                                                 |                       |
| 11 | 다면평가 계획 수립<br>교과별, 부서별, 학년별 예산편성 및 조정                                                                  |                       |
| 12 | 2학기 교육과정 평가회 및 워크숍 운영 계획<br>겨울방학 계획 수립<br>졸업식 행사 계획<br>졸업생 사정 기준 개정                                    |                       |





## 8. 학교자치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                  | 학 교 자 치, 우리 학교에는 있다? 없다?                | 있다 | 없다 |
|-----------------------------------|------------------|-----------------------------------------|----|----|
| 자<br>치<br>기<br>반<br>구<br>축<br>(前) | 인식<br>개선         | 학교자치조례를 알고 있는가                          |    |    |
|                                   |                  | ‘학교자치’를 주제로 같은 학교 구성원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가? |    |    |
|                                   |                  | 민주적 회의 문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가          |    |    |
|                                   |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있는가       |    |    |
|                                   | 제도적<br>장치<br>마련  | 학생회, 학부모회를 위한 별도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각 주체별 학교자치 실행을 위한 회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교육주체 간 소통의 시간(교육주체 대토론회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    |
|                                   |                  | 학교자치조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    |    |
|                                   | 학교<br>자치기구<br>조직 | 학교자치조례에 근거한 학교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는가            |    |    |
|                                   |                  | 학교자치기구 규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학교자치 규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학<br>교<br>자<br>치<br>실<br>현<br>(中) | 학교<br>민주화<br>실천  | 학교자치기구별로 안건 중심의 민주적 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합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가          |    |    |
|                                   |                  | 학교자치기구에서 수렴된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는가 |    |    |
|                                   |                  | 학교장은 학교자치기구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    |
|                                   | 교육<br>과정<br>자치   | 학교 비전과 목표를 공감하고 실천하는가                   |    |    |
|                                   |                  |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가  |    |    |
|                                   |                  | 교사의 법령 범위 판단에 근거한 교육과정 편성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    |    |
|                                   |                  |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에 대한 학생자치회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    |    |
|                                   | 재정자치             |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학교자치기구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    |    |
|                                   | 인사<br>자치         | 교사회, 교직원회 협의 결과가 인사자문위원회에 전달되고 있는가      |    |    |
|                                   |                  | 교장공모, 교사 초빙에 학교자치기구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가        |    |    |

|                                   |                |                                                    |  |  |
|-----------------------------------|----------------|----------------------------------------------------|--|--|
| 자<br>치<br>문<br>화<br>확<br>산<br>(後) | 역량강화<br>지원     |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마련되고 있는가                        |  |  |
|                                   |                | 학교자치기구별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저해요인<br>해결     | 불필요한 수직적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  |
|                                   |                | 필요 이상의 내부기안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있는가                        |  |  |
|                                   | 자율책임<br>문화     | 나(학생, 학부모, 교직원)는 교육주체로서 스스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br>책임지고 있는가 |  |  |
|                                   |                | 학교자치기구는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며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가                |  |  |
|                                   | 사례<br>발굴<br>확산 | 학교자치기구 협의회를 통해 학교자치 실천사항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             |  |  |
|                                   |                | 올해의 학교자치 성찰 결과를 차년도 학교 운영 계획에 발전적으로 반영하고<br>있는가    |  |  |
|                                   |                | 학교자치 사례를 다른 학교와 공유하고 있는가                           |  |  |



## 9.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 11. 11.] [경기도조례 제6403호, 2019. 11. 11., 제정]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하는 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6.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 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5.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2.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③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전에 관한 사항
  -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⑦ 교직원회의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제6403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MEMO**

 **MEMO**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

# 학교 자치 한 살 한 해

## 집필

김정애 대화고등학교 교사  
문태혁 한일초등학교 교감  
정태윤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교사  
최난실 운암초등학교 교사  
서강선 장곡중학교 교사  
이한섭 덕장중학교 교사  
정창규 여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재광 향남고등학교 교사

## 도움

김철원 이우고등학교 교장  
백원석 시흥중학교 교사

## 삽화

김채원 성남초등학교 교사

## 기획

정태희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철규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조운금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발행일 2021년 2월



# 학교 자치 한 살이 한 해

학교자치 도움 자료집